

#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2025 21<sup>ST</sup> CENTURY KOREAN MUSIC PROJECT FINAL ROUND

2025 국악창작곡개발 - 제19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는 한국음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우수한 국악창작곡을 개발하고 역량 있는 신진예술가를 발굴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고의 국악창작곡 경연대회입니다.

---

대상	1팀	상금 1천5백만 원, 국무총리 상장, 상패
금상	1팀	상금 8백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장, 상패
은상	2팀	각 상금 5백만 원, 국립국악원장, 국악방송사장 상장, 상패
동상	2팀	각 상금 3백만 원, 국악방송사장 상장, 상패
장려상	4팀	각 상금 2백만 원, 국악방송사장 상장, 상패

---

# 21c 한국음악 프로젝트

2025 21<sup>ST</sup> CENTURY  
KOREAN MUSIC PROJECT  
FINAL ROUND

2025 국악창작곡개발  
제19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

**2025. 5. 15.(목) 19:00**  
**국립국악원 예약당**

## 축하의 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입니다.

젊은 음악인의 열정과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만날 수 있는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분들과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대표 창작국악 경연대회로서 지난 18년 동안 국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한국 문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국악 고유의 정체성을 공연, 방송, 음원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확장해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첫 ‘국악의 날’을 맞이해 더욱 뜻깊은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푸른 잎이 생동하는 활기찬 오월, 국악으로 모두 하나 되어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케이-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면서 그 뿌리인 국악도 어느 때보다 시대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음악인의 끝없는 도전의 결과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젊은 음악인의 창작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해 우리 문화예술의 힘을 키우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대회 참가자 여러분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악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전통이 될 이 시대 젊은 국악을 선보이는 '국악창작곡개발-21c한국음악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21c한국음악프로젝트'는 한국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전통음악의 현대화에 이바지해 온 국내 최고의 창작국악 경연대회입니다. 그동안 대회를 통해 160곡이 넘는 창작국악 작품이 세상에 나왔으며, 이 무대를 거쳐 수많은 실력 있는 인재들이 성장해 국악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음악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 나아가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 사장  
원만식

오늘 본선 경연대회에 오른 10곡의 창작 국악곡이 바로 이 자리에서 첫선을 보입니다. 전통에 대한 자긍심과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오늘의 한국음악을 새롭게 빛어내는 젊은 국악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제1회 국악의 날'(6월 5일) 제정을 기념하여, 역대 수상자들과 올해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합동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대회를 개최하여 '여민락'을 작곡한 세종대왕의 음악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합니다.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여민락'의 뜻처럼, '21c한국음악프로젝트'가 국악을 일상에서 즐기고 함께 공감하는 모두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19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악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음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만나기 위해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음악감독의 글



음악감독  
권송희

‘21c한국음악프로젝트’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오늘의 감각과 언어로 음악을 새롭게 써 내려가는 창작자들의 무대입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해마다 한국음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살아 있는 실험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도 그 여정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뿌리를 되새기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과감한 실험을 통해 음악의 경계를 넓히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무대는 그러한 여정들이 자유롭게 펼쳐지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다채로운 공명의 장이 될 것입니다.

‘21c한국음악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창작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색깔이 오히려 드러나는, 진정한 창작의 여정입니다. 치열한 고민 끝에 탄생한 음악이 무대를 통해 빛나고, 그 음악에 담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찰나의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음악적 궤적을 창조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음악 언어를 거침없이 펼치리라 믿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통음악을 새롭게 해석하고, 낯선 감각과 다채로운 소리로 시대의 정서를 포착한 팀들이 많아 더욱 기대가 큼니다. 본선에 오른 10팀 모두가 이 대회的主角이며, 한국음악의 내일을 함께 그려갈 소중한 동료들입니다.

끝으로 이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참가자분께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악방송을 비롯한 관계 기관, 심사위원, 제작진, 그리고 이 음악에 귀 기울여 주시는 관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통음악은 늘 우리 곁에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무대에서 탄생할 ‘21세기 한국음악’의 새로운 얼굴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빛나는 순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프로그램 순서

- **본선 경연**

- 1 **창작민속악그룹 '화은'** 수류가(水流歌)
- 2 **삼산** 21C 한국음악
- 3 **차잔밴드** 가녀린 아이
- 4 **METALISM** 낮고 녹슨...
- 5 **비랑(飛浪)** 어둑시니
- 6 **JOYY** 건드렁
- 7 **판도라(PANDORA)** 대장장이 신
- 8 **오름새** 떼루(Together)
- 9 **프로젝트 금** 사(絲)물놀이
- 10 **무던MU:DERN** 무던히

- **특별공연**

**축하무대** 구이임

**합동무대** 역대 수상자 × 본선 참가자

- **시상식**

- **사회**



방송인 김선근



방송인 박은영

# 1. 창작민속악그룹 ‘화온’



‘화온’은 ‘花’(꽃 화)와 영어 ‘on(온)’을 결합한 이름이다. ‘花’(꽃 화)는 성장과 변화, 아름다움과 가능성의 확장을, ‘on(온)’은 창작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발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양한 음악적 배경을 지닌 멤버들이 모여 민속악을 바탕으로 창작음악을 만들어가며, 국악을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전통의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창작 민속악’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 수류가(水流歌)

‘바다’와 그 흐름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민속음악 시나위를 모티브로 해서 시나위의 자유로운 흐름 속에 번덕스러운 파도,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뱃사람의 삶을 담았다. 고요히 출항해 거친 파도를 지나, 마침내 잔잔한 물결 속으로 귀향하는 여정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삶, 그리고 인생의 길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이 곡은 바다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닮아있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질서와 조화를 찾아가는지를 탐구하는 여정이다. “바다는 우리의 무대, 음악은 우리의 항해. 우리는 출항했고, 만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작곡 창작민속악그룹 ‘화온’

작사 동다운, 이지윤

대금·노래 이규원

가야금·노래 이지홍

아쟁·노래 홍소은

타악·노래 전정현

건반·노래 동다운

## 2. 삼산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에서 성장해 활동명을 삼산(Three Mountains)으로 지었다. 미디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국적인 색채를 더한 독창적인 음악을 선보이며, 재치 있고 솔직한 가사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하고, 새로운 음악적 조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음악적 고민을 풀어내고, 21세기 한국에서 태어난 새로운 음악 속에 흐르는 오래된 뿌리를 음악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

### 21C 한국음악

대회 이름에서 영감을 받아, 21세기 한국음악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쓴 작품이다. ‘국악’이나 ‘전통음악’이라 불리는 장르를 넘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삼산이 새롭게 정의한 한국음악을 선보인다. 전통음악은 어렵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해, 수많은 역사와 변화 속에서도 무사히 전해진 우리 음악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 21세기 한국음악 안에서 자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노래한다.

작사·작곡 삼산

편곡 이현준

보컬 삼산

기타 이현준

베이스 김유민

퍼커션 송세빈, 김한결

출 신지혜, 윤제나

# 3. 차잔밴드



‘차잔’은 보컬 차혜지의 예명으로, 판소리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예술적 정체성을 팀 이름에 담아 고유의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통음악이 이 시대의 청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표현 언어와 형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밴드 사운드와의 결합을 시도했다.

밴드 사운드는 판소리의 정서적 흐름에 맞춰 호흡하고, 소리꾼의 즉흥성과 창의성을 능동적으로 뒷받침하는 음악 구조로 실현하고자 한다.

## 가녀린 아이

‘가녀린 아이’는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를 상징하며, 우리가 지닌 연약함을 대변한다. 부드럽고 연약한 감정의 곁을 거칠고 강렬한 메탈 사운드로 표현한 이 음악은 억눌린 감정의 폭발이자, 우리 모두의 가녀린 존재에게 보내는 일종의 외침이다. 판소리의 서사적 힘과 밴드 사운드의 감각이 교차하는 이 곡은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끊임없는 아픔과 내면의 고통을 담고 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피어나는 꿈과 희망을 암시하며, 우리에게 약함을 꺼안고도 계속 버텨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어른이 된다는 건, 약함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약함을 꺼안고도 버텨내는 일이다.”

작곡 차잔밴드	기타 김재운
작사 차혜지	베이스 박채웅
보컬 차혜지	드럼 송찬영

# 4. METALISM



METALISM은 금속(METAL)성의 소리를 음악적으로 실현하는 방식(-ISM)을 뜻하며, 국악의 금속성 소리를 바탕으로 음악을 창조하는 팀이다. 금속성 음색의 탐구에서 시작해 독창적인 시도를 통해 새로운 음향과 음색,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다. 철장구와 철법금을 비롯한 다양한 악기를 개량해, 차갑고 낯선 금속 국악기의 매력과 잠재성, 그리고 국악의 가능성을 선보이며 자신들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자 한다.

## 낯고 녹슨...

'낯음'과 '녹슴'의 콘텍스트(context)를 주제로 작곡된 곡으로, 낯고 오래된 전통음악의 낯양스를 바탕으로 쇠의 울림을 통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낸다. 철가야금의 날카로운 긴장감, 철아쟁과 철현금의 무거운 공명, 징의 깊이 있는 울림, 그리고 생황과 태평소의 흐르는 듯한 호흡이 맞물려, 변화하고 변이하는 음악을 선보인다. 낯고 녹슨 것들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듯, 과거의 음악이 단순히 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감과 소리로 변주될 때 더 강한 생명력을 지닌다는 생각이 이 음악에 담았다.

작곡 최민준

철현금 최민준

철가야금·철정악가야금 허병훈

금속타악 황정현

철아쟁 윤겸

생황·태평소 김현승

## 5. 비랑 飛浪



‘飛’(날 비)와 ‘浪’(물결 랑)을 결합한 이름으로, 하늘을 나는 자유로움과 물결처럼 퍼지는 역동성을 의미한다. 음악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물결처럼 다양하고 끊임없이 흐르고 싶은 마음을 팀명에 담았다.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소리를 추구하며, 전통음악이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국악의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악의 매력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여정은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길이다.

### 어둡시니

‘어둡시니’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는 민담에 나오는 요괴로, 이를 물리칠 방법은 오직 ‘바라보지 않는 것’뿐이라고 전해진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두려움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고, ‘어둡시니를 쳐다보지 않으면 마음속의 어둡시니도 사라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어둡시니가 만들어내는 두려움과 그에 맞서는 과정을 음악에 담았다. 1악장 ‘어둡시니 등장’, 2악장 ‘술래잡기’, 3악장 ‘두려움의 벽’, 4악장 ‘지푸라기’로 구성해, 두려움을 직면하거나 외면하는 우리 내면의 모습을 그려낸다.

작곡 비랑(飛浪)

해금·글로켄슈필 공우담

해금 김진희

해금 이종민

해금·방울·죽비 김민주

타악 김지호

# 6. JOYY



JOYY는 'Joyful, Original, Youthful You'의 약자로, “기쁘고, 독창적이고, 젊은 너”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음악을 통해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고, 새로운 감각과 색다름을 선사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 민요의 친근함과 감동을 바탕으로 세대를 아우르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다. 멤버 각자의 개성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과 활기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건드렁

경기민요 '건드렁타령'의 후렴구인 '건드렁'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건드렁거리다'라는 표현은 흔히 건들거리며 거만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이 곡에서는 자유롭고 당당한 태도와 주체적인 매력을 강조한다. 국악적 요소에 다채로운 리듬을 더해, 전통적인 선율과 강렬한 비트가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몸을 들썩이게 만드는 리듬감과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건들거리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허세가 아니라 개성과 자신감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작곡 JOYY      가야금 임하량  
작사 윤세연      베이스 김진규  
보컬 윤세연      드럼 윤명식

# 7. 판도라 PANDORA



‘판도라’는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의 명을 받아 만든 첫 번째 여성형 인간으로, 올림포스 신들의 재능을 하나씩 받아 많은 능력을 지니게 된다. 우리도 다양한 신들을 만나 그들의 재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팀 이름을 ‘판도라’로 지었다. <21c한국음악프로젝트>를 위해 결성된 팀으로, 각자가 지닌 다양한 재능과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

## 대장장이 신

헤라의 아들이지만 못생긴 외모 때문에 버려지고 절름발이가 된 헤파이스토스가 대장장이 신이 되는 이야기를 담은 곡이다. 탄생의 순간이 비극이 되는 1악장 ‘탄생의 비애’, 추락한 땅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대장장이로 실력을 닦아 황금 의자를 만드는 2악장 ‘절름발이 춤’, 황금 의자로 헤라에게 복수하고 올림포스 12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3악장 ‘공허한 회귀’로 구성돼 있다. 현실적 어려움이나 결함을 가진 사람들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음악이다.

작곡 판도라(PANDORA)      생황 이아영  
타악 전형규                  양금 이원주

## 8. 오름새



전통연희와 대중음악의 감각적 에너지를 결합한 국악 밴드이다. 오름새는 '오르다'와 전통연희의 자연스러운 몸짓을 의미하는 '버숨새'를 결합한 말로 전통의 몸짓 위에 현대의 감각을 더해 더 높은 음악적 지점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전통연희의 공동체 정신과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결합해 경계를 넘나드는 창의적인 무대를 만들고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자 한다.

### 떼루(TOGETHER)

'떼루'는 '같이'라는 뜻으로 현대 사회에서 점점 익숙해진 혼자만의 삶을 조명하여 소통의 단절과 그로 인한 사소한 갈등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문제를 노래한다. 전통연희의 인형극에서 사용된 노래를 바탕으로 놀이적 요소와 공동체 정신을 모티브로 삼았으며 함께 어우러지는 연희의 본질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 장단과 멜로디에 현대적인 음악 언어를 더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각적인 연희 노래곡으로 구성하였다.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같이'의 가능성을 다시금 이야기하고자 한다.

원곡 전통 인형극 '꼭두각시놀음' 中 떼루  
작사·작곡 송창현  
노래·쇠 송창현

피리 차승현  
드럼 김동빈  
건반 서주원

기타 광동균  
베이스 이수민

# 9. 프로젝트 금



네 명의 가야금 연주자들로 구성된 팀으로 가야'금'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꾸준히 작업하겠다는 뜻을 담아 '프로젝트 금'이라는 팀 이름을 만들었다. 가야금 앙상블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사물놀이의 역동적인 리듬과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실험적인 음악을 선보이고 있으며 가야금의 다양한 주법과 선율을 결합해 리듬과 선율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음악을 만들고자 한다.

## 사(絲)물놀이

사물놀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으로 현악기(絲)인 가야금  
넉 대의 각기 다른 울림이 모여 더 큰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가는 순간을  
담은 곡이다. 삼도사물놀이를 기반으로 질긋, 풍류, 자진모리,  
휘모리장단으로 구성해 선율과 리듬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프로젝트 금'만의 독창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 사물놀이의 악기들이  
하나의 울림을 만들듯 각자의 가야금이 맡은 소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화합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넉 대의 가야금이 만들어내는  
리듬과 울림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전하고자 한다.

작곡 프로젝트 금

가야금 김경은, 이유림, 정유경, 황보민경

# 10. 무던MU:DERN



무던MU:DERN은 ‘music’과 ‘modern’을 합친 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현대적이면서 세련된 감성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여성 보컬 세 명의 조화와 에너지가 특징이며 서로의 개성과 다양한 창법을 살려 국악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다. 진솔한 이야기를 음악에 담아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친숙한 음악을 선보이고자 하며 대중이 무던의 음악을 찾아 듣고 흥얼거리게 될 날을 기대한다.

## 무던히

삶의 무게를 견디며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다. 이 음악은 무거운 현실 속에서 지쳐가는 이들에게 건네는 유쾌한 한마디로 지난 시절의 나와 과감히 이별하고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서도민요와 판소리 창법을 바탕으로 전통 타악과 밴드 사운드를 결합하여 전통과 현대의 에너지를 모던한 감성으로 표현하였고 후렴구에서 체념과 회복을 향한 의지를 해학적으로 그려낸다. 모두가 조금씩 지쳐 있는 시대에 이 음악은 말한다. “우리, 이제 무던히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자.”

작곡 무던MU:DERN

작사 이수현, 김유진, 권자영

보컬 이수현, 김유진, 권자영

건반 백준오

드럼 최인호

베이스 이주영

피리·태평소 김현승

동해안 장구 권진우

# 축하무대



## 구이임

2024 제18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 수상

정가(구민지), 경기소리·피아노(이채현), 가야금(임정완)으로 구성된 팀으로, 특정한 단어나 이미지에 음악적 방향이 제한되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지었다. 모든 연주자가 주체가 되어 각자의 음악을 제시하고, 함께 조율하며 작업하는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다. 장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예술적 세계를 자유롭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

## 생(生)

인생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를 어항 속 물고기의 시선으로 풀어낸 곡이다. 어항에 살던 물고기가 그것을 넘어가든 말든, 고민하든 바라보든, 그것은 모두 '생(生)'이다. 어항 속 다양한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두 대의 가야금을 활용한 새로운 음악적 연출을 시도했다.

작곡 구민지, 이채현, 임정완 **작사** 구민지, 이채현

정가 구민지 **경기소리·타악** 이채현 **25현 가야금** 김지연(객원)

## 풍경

윤동주 시인의 시 「풍경」을 가사로 한 음악그룹 '구이임의 첫 번째 자작곡이다. 고향을 떠올리다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자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과, 상상이기에 더욱 아련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다.

시 윤동주 **작곡** 구민지, 이채현, 임정완

정가 구민지 **피아노** 이채현 **25현 가야금** 김지연(객원)

# 합동무대



편곡 김백찬

**노래** 장명서, 삼산 윤세연, 권자영, 김유진, 이수현, 오단해, 송창현, 차혜지

**해금** 공우담 **대금·소금** 김범수 **피리·태평소** 차승현 **건반** 김성은

**기타** 김재윤 **베이스** 김진규 **드럼** 윤영식 **타악** 박한결, 황정현

## 역대 수상자 × 본선 참가자

'국악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의미를 더해, 역대 수상자와 올해 참가자가 함께 꾸미는 특별한 무대. <21c한국음악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해 많은 사랑을 받은 다섯 곡을 한 무대에서 선보이며, 국악과 함께 모두 즐기는 축제의 장을 펼친다.

### 바람과 함께 살아자다

원곡 : Project GM(2007년 제1회 월드뮤직상)

**대나무술** 원곡: 박한결(장명서(2018년 제12회 은상))

**자유** 원곡: 창작 아티스트 오늘(2021년 제15회 대상)

**재비모리** 원곡: 어쿠스틱 앙상블 재비(2011년 제5회 대상)

**난감하네** 원곡: 프로젝트 락(2007년 제1회 대상)

# STAFF

## 운영

기획총괄  
 운영총괄  
 음악감독  
 프로듀서  
 프로젝트 매니저  
 구성  
 운영지원  
 현장지원  
 진행  
 현장진행  
 사진촬영  
 메이킹필름·VCR  
 프롤로그 제작  
 홍보스팟 제작  
 디자인·인쇄  
 홍보  
 SNS 홍보  
 분장  
 음원제작

김은하  
 이혜승  
 권승희  
 정확히  
 양진샘  
 박근희, 임예림  
 신근호, 최민석, 이주연, 신태선, 함두배, 박은규, 김광호, 김혜경  
 이은희, 조남원, 김선희, 유지선  
 추효림, 심다솜, 김민승, 최서진, 고은진, 송정민  
 권세야, 최진우, 박성민, 레드미디어엔터테인먼트  
 김용대  
 주용상  
 김유나  
 진동욱 (CGSEAL), 이철우  
 황유진 (스튜디오 눈그래픽)  
 이신혜  
 박다정 (위돌)  
 조수연 (싸우)  
 이정면, 이동규 (이음사운드)

## TV 중계

기획  
 책임프로듀서  
 기술책임  
 연출  
 조연출  
 작가  
 방송기술  
 기술·영상·음향감독  
 카메라감독  
 지미집  
 전동레일  
 발전차  
 케이블보조  
 중계차 운행  
 방송편성  
 방송송출  
 유튜브 운영  
 타이틀영상·문자그래픽  
 스코어리더

이혜승  
 정재구  
 신태선  
 정대영  
 이정연, 모아리, 송은주  
 이그림  
 공중운, 김건주  
 지선교, 성현석, 김영원  
 김성진, 이호재, 강석용, 임정현, 김세진, 지이환  
 김대한  
 이기홍, 임민  
 고대원  
 김태호, 전재영  
 김준하  
 이해석, 김보람, 이소희  
 미디어캔  
 최지수  
 진동욱 (CGSEAL)  
 허원선

## 라디오 중계

기획  
 책임프로듀서  
 기술책임  
 방송기술  
 방송편성  
 진행자

이주연  
 김연주  
 신태선  
 오석민, 김진선  
 이성아  
 송현민

## 무대

무대총괄  
 무대감독  
 율량감독  
 조명감독  
 약기입차  
 무대세트  
 LED  
 VJ  
 구조  
 전식  
 특수효과

진영준 (메이드바이)  
 허범수, 권혁은 (블랙워크)  
 김효진 (레드컴퍼니)  
 정종욱 (디오라이트)  
 박상기 (EM약기)  
 안웅길 (MD 스테이지)  
 김세웅 (M2Visual)  
 양영신, 한정우 (VJ youngshin)  
 우지은 (한성 트러스)  
 김진복 (E2M)  
 강준규 (코리아특효)

#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2025 21<sup>ST</sup> CENTURY KOREAN MUSIC PROJECT FINAL ROUND

2025 국악창작곡개발 - 제19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 국악방송 홈페이지

[www.igbf.kr](http://www.igbf.kr)

## 국악방송 유튜브

@GugakTV

@GugakFM991

## 국악방송 인스타그램

@igbf.kr

## 국악방송 페이스북

[www.facebook.com/igbf.kr](http://www.facebook.com/igbf.kr)

##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인스타그램

@21c\_kmp

## 문의

02-300-9973

21cproject@igbf.kr

### TV

지니tv ch. 251  
SKBtv ch. 268  
LG유플러스 ch. 189  
LG헬로비전 ch. 174  
SKBtv케이블 ch. 130  
딜라이브 ch. 225  
서경방송 ch. 144  
아름방송 ch. 161  
울산중앙방송 ch. 167  
남인천방송 ch. 110

### FM RADIO

서울 · 경기 99.1MHz  
광주 99.3MHz  
대전 90.5MHz  
부산 98.5MHz  
대구 107.5MHz  
전주 95.3MHz  
경주 · 포항 107.9MHz  
강릉 103.3MHz  
목포 · 진도 94.7MHz  
남원 95.9MHz  
제주 91.3MHz  
서귀포 106.9MHz  
충주 101.7MHz  
영동 99.3MHz  
제천 90.1MHz